

무대의상 디자인에 관한 연구 -Antonin Artaud의 Les Cenci를 중심으로-

손 영 미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I. 서론

종합예술인 한편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데는 다양한 것이 요구된다. 즉 미술, 음악, 무용, 문학 등이 있으며 여기에 등장인물의 개성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무대의상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무대의상은 작품속의 등장인물의 역할을 설명하는 기호의 의미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작품의 내용을 더욱 리얼하게 이해하게 하는 설득력의 도구적 표현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하나의 작품을 선택하여 무대의상을 형상화시키는 작업을 시도해 봄으로써 연극무대에서 의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시도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레 쌍씨(Les Cenci)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작품을 쓴 앙토냉 아르또(Antonin Artaud)와 그의 연극사상인 잔혹연극이 현대연극에서 중요한 가치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현대연극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연극계에서는 생소한 아르또와 그의 연극이념인 잔혹연극을 널리 소개하고 그와 더불어 초현실주의를 바탕으로, 잔혹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무대의상을 제작함으로써 무대의상이 거의 불모지이다시피한 우리나라 무대의상 디자인에 새로운 자극을 부여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앙토냉 아르또(Antonin Artaud)의 연극사상

아르또는 '아직까지도 전통성을 벗어나지 못한 근대연극의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에 적의를 품고 그들에게 20세기가 가지고 있는 격렬성과 원시성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연극적 재산은 낡은 것이라는 것을 실천해 보아고자 하였으며 연극은 새로운 눈요기거리가 아니라 관객과 연기자간의 완전한 교류를 불러오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아르또는 아빨리네르의 "테레시아스의 유방(Les Mamelles de Tirésias)"을 초현실주의 연극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최초의 작품이라고 분석하면서 초현실주의를 아르또 자신의 재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현대문명이 겪는 고통과 한계를 체험하면서 동시에, 수용태도와 전통에 대한 신뢰를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아르또의 의도에 따라 그의 관심은 서양의 물질문명과 편리추구에서 동양의 일신문화로 기울어지게 되고, 이것은 신비주의라는 사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또한 그는 새로운 연극은 원시적, 전논리적인 인간성에 기반을 두고 관객에게 연극적 행동을 통하여 공포와 광란의 경험을 심어주어 새로운 체계의 진실과 초인간적인 것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연극에 위협과 잔인성을 가져올 방법으로 잔혹연극을 표방하였는데 이것은 사회의 모든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감정과 감각을 발산시킬 수 있는 한도까지 활성화 내지 재점화 시키는 연극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아르또의 연극사상은 크게 초현실주의, 신비주의, 잔혹연극으로 나누어지지만 이러한 사상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엉켜 있어서 순서대로 나타나는 사상은 아니다.

Ⅲ. 작품분석

레 쌍씨는 앙드레 아르또의 자작비극으로, 그의 잔혹연극에 대한 이론을 잘 표현하고 있는 이 작품의 주제는 근친상간이다. 아르또가 처음으로 근친상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로트의 딸들(Les Filles de Loth)"을 본 다음부터이다. 이 그림은 '바닷가의 천막에 아버지 로트가 앉아 있다. 흥감차림으로 아름다운 붉은 수염을 날리면서 그는 마치 창녀들의 축재에 참석한 것처럼 자기 딸들을 보고 있다. 딸들 역시 아버지의 욕정을 끄는 것만이 목적인 듯 머리 손질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르또는 잔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가지 방법으로 근친상간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아르또의 근친상간은 처음에는 절망과 공포였다가 후에는 서서히 생명의 열망으로 승화한다. 몰락과 파괴에서 점점 순수와 창조로 떠오르는 현상을 아르또는 근친상간이라는 남녀의 대립에서 찾으려 한 것이다.

Ⅳ. 작품제작 및 해설

레 쌍씨는 20세기 초에 집필된 것이지만 이 희곡의 배경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이므로 무대의상을 형상화시킬 때 시대적 배경이 문제시 될 수 있다. 그러나 무대의상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의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연극적인 예리한 안목과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특수 의상이라는 것과 아르또가 초현실주의에 깊이 심취했었고 초현실주의운동에 오랜 기간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평생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의상에서의 탈피를 시도해 보았다. 즉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개성 및 상황, 심리상태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실부엌을 선택하였고 될 수 있는 한 특수재료와 흔히 볼 수 없는 소품을 사용하여 초현실주의의 잠재적인 상상력을 표현하였다.

1. 베아트리스 : 쌍씨의 딸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결국 근친상간을 당하고 쌍씨를 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린 시절의 꿈이 암시하듯이 불행과 파멸의 운명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정되어 있다.

1) 2막의 무대의상

태어나면서부터 불행과 파멸이 운명지어진 베아트리스의 2막에서의 무대의상을 제작하였다. 디자인 특징으로는, 원줄기에서부터 잘려나가는 '가지치기'의 희생자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무줄기 및 잔가지와 나뭇잎들을 디자인 동기로 삼았다(그림 1).

2) 4막의 무대의상

근친상간을 당한 후 아버지를 암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죄로 감옥에서 고문 당하는 4막 3장에서의 무대의상을 제작하였다. 디자인 특징으로는, 고문당하고 죽어가며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곤충을 디자인 동기로 삼았다(그림 2).

2. 자객 : 병어리 살인청부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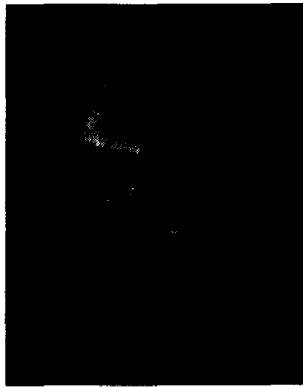
종이를 찢는 것처럼 아무 생각없이 사람을 죽이는 암살자로써 야비한 악당이다.

쌍씨를 직접 살해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겁에 질려 두 번의 실패 후 결국 세 번째에 겨우 암살에 성공한다.

디자인 특징으로는 병어리가 의사표현을 할 때 가장 긴요하게 쓰는 손, 또는 암살자가 살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손을 디자인 동기로 한다(그림 3).



〈그림 1〉 2막의 무대의상



〈그림 2〉 4막의 무대의상



〈그림 3〉 자객의 무대의상